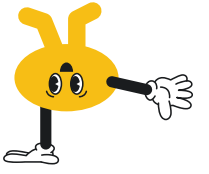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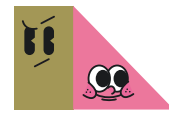


행동하는 지식, 변화의 시작

* 20 - 23



공익활동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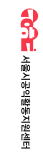
습



리포트



2023 공익활동 학습 리포트



2023 공익활동 학습리포트
행동하는 지식, 변화의 시작



1

헤매는 길
모두가
우리 것이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성장과 배움의 여정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활동가 교육, 6인의 인터뷰

3

2023 공익활동 학습 트렌드
인공지능(챗GPT)과 비영리에서의 활용 가치

5

2023 판 이벤트 'P.A.N.&I'
판은 ○○○이다

4

데이터로 본 활동가 학습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ver.

헤매는 길 모두가 우리 것이다

박승배 센터장



행동하는 지식, 변화의 시작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최신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 모두 아주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어서 도전과 시행착오라 표현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센터는 활동가학습플랫폼 판(이하 '판')을 통해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활동가와 단체 간의 지식 정보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판은 137곳의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운영합니다. 2023년에는 모두 총 788건의 교육정보를 게시했습니다. 플랫폼 조회수는 7만 건이 넘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공익활동가의 자문을 통해 기획·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의 필요성과 경향성을 엿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행동하는 지식, 변화의 시작: 2023 공익활동 학습 리포트」(이하 '리포트')가 내년 활동의 매개이거나

계기가 되길, 활동가의 학습 동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활동가들이 학습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자기 계발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활동가 자신 혹은 우리 단체가 매달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리포트는 활동가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최근 공익활동 학습 트렌드로서 챗GPT 등 인공지능의 공익활동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한 판의 교육현황을 데이터로 정리해 제공합니다. 활동가 뿐만 아니라 학습 프로그램 기획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개별 활동가나 단체의 능력 향상과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며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판은 그런 의미에서 우수한 콘텐츠만큼이나 시민사회가 놓인 환경을 읽고 트렌드를 쫓아 활동가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동반을 돕는 여러 개의 길이 되겠습니다. 교차하는 길들이 사회를 받치는 매듭이 되기를, 공익활동 현장의 애쓰는 활동가 모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2023.12.14.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승배**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활동가 교육, 6인의 인터뷰

들어가며

저에게 활동가를 만나는 건 언제나 고마움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활동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변화를 꿈꾸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양한 활동가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활동가가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참 감사하지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처음 활동가들을 만나게 된 것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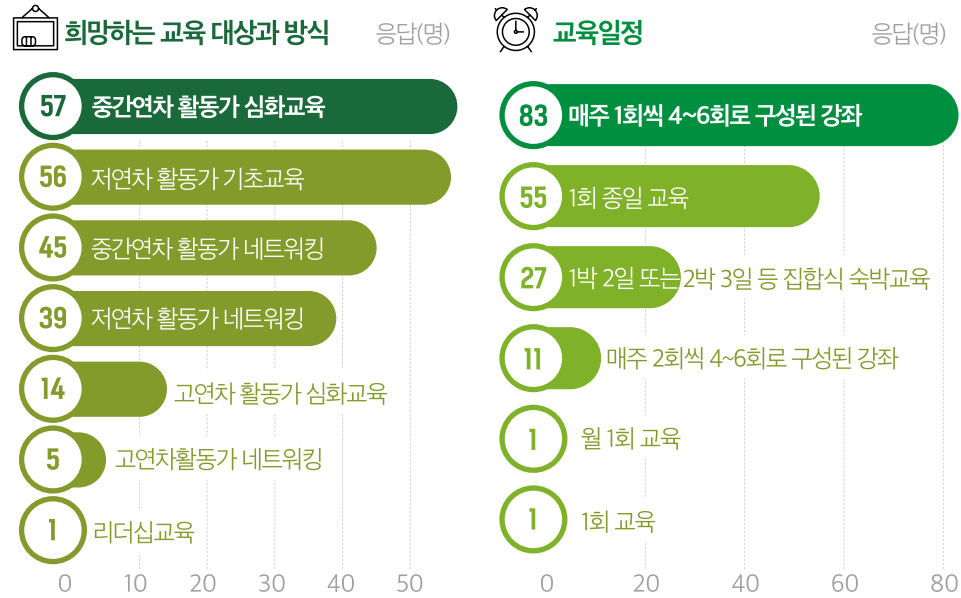
다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친해지면서 그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활동가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 세상의 다른 면을 지탱하고 있었던 활동가들의 삶을 생각함에 울컥할 때가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어느덧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한 명의 활동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교육,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애쓰고 있을 활동가들, 규모가 있는 곳에서 커다란 프로젝트와 씨름하고 있는 활동가들 모두가 배움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교육 개발을 위해 진행했었던 6명의 인터뷰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지 않게 각자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옳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또는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묻어나옴에 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초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활동가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우리 활동가가 바라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저연차 활동가 기초교육, 중·고연차 심화교육, 네트워킹의 필요성이지요.

그리고 교육은 매주 1회씩 너무 길지도 않은 4-6주 구성된 강좌면 좋겠다는 의견도요. 시대의 반영만큼 오프라인의 비중은 높았고, 커리큘럼에 따라 온오프 동시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높았습니다.



교육 주제로는 모두가 히어로를 꿈꾸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이 가진 기본적인 이타적 삶을 보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런 걸 모두 해내려는 욕심쟁이처럼 보이면서도 마음이 짠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저만의 글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활동가가 가진 고민의 흔적과 성장의 필요성을 오롯이 느끼며 공유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멋진 활동가들의 삶처럼

살아가지 않기에 행여나 한 사람의 생각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활동가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 활동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

활동가들의 활동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요.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지만, 활동가들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생소한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엑셀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역량과 기획력, 소통 역량을 갖춰야 하거나, 집회나 연대 활동에 필요한 성명서, 보도 의뢰서 작성과 대중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역량을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현재는 예전의 시민운동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운동 방식의 접근도 달라진 만큼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공론장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포착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감각과 정보가 없어 적극적으로 리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죠. 조직 역시 온라인에 대한 전문성과 가치를 인지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을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 기관에 보내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교육 정보를 찾는 곳

그럼, 우리 활동가들은 어디에서 배움의 정보를 찾고 있을까요? 정보의 홍수 시대인 만큼 SNS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와 관련된 교육을 SNS를 통해 확인하거나, 동료 활동가들이 SNS 정보를 공유해 주면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활동가학습플랫폼 판을 소개받고 활동가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놀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생기고 알찬 콘텐츠들로 채워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역별로 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활동가 교육

활동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묻게 됩니다.

활동가의 교육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고, 활동가의 성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직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활동이기에 비전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교육의 목적이 기술적, 전문적 역량강화인지, 아니면 활동가 정체성 정립인지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역량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초장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역량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활동가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어요.

활동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시민사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와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합니다.

활동가에게 좋은 배움은

그렇다면 활동가가 받았던 유의미한 활동가 교육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정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배움과 성장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좋은 배움은 무엇이였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줌(zoom)’이라는 시간과 거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20~30명의 활동가들이

각자 본인의 콘텐츠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고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장기 교육으로 담론과 이론에 치중한 무게감이 있는 프로그램, 학기별로 동질감이 형성되는 동문이 만들어지는 집중과정도 좋았다고 합니다. 선배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듣고 그에 따른 영향과 성과,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다른 기관의 캠페인 사례와 1:1 멘토링,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교육도 의미 있는 배움으로 꼽혔습니다.

전국 단위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네트워킹하는 자리도 좋은 사례로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 활동가 교육에 필요한 것들

다양한 시도와 교육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는 다양하고 부족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활동가 교육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신입 활동가에게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들, 스피치, 자기 계발, 마음 돌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동료들 만나 서로 배울 수 있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플랫폼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넓게 퍼져 있는 다양한 기관의 자료들을 정돈된 플랫폼으로 모으고 코디네이팅하여 목적성 있게 배치해서 보여 주며, 특정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점은 신입 활동가도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시야가 필요하기에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권 분야 활동은 당사자주의가 중요한 정체성 운동이 많습니다. 활동가 개인의 감수성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슈와 이슈가 만나거나 사회구조적인 담론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현재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문제의식을 사회구조로 확장해 나갈 힘을 길러주는 철학 교육이 수반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활동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성이 있는 활동가가 되기를 바라는 어느 선배 활동가의 목소리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소통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소통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태도 역시 중요하지요.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활동은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할 텐데요. 내 일이 곧 삶이고, 내 동료가 친구였던 시대를 지나 직장과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익활동의 의미, 관점, 정체성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며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중견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중견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활동가 재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교육 과정과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했던 곳이었기에 중견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견 활동가들이 원하는 교육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교육보다는 관계가, 실무보다는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살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적으로 논의할 상대가 적은 데다가 기존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다 보니, 해오던 이야기들만 반복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활동가의 교육은 만나는 것부터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방법론적인 접근에 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우리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교육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방법론적인 의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활동가 6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교육의 방법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표현들이지만, 한 곳으로 귀결되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인 참여와 네트워킹이라는 단순 명료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사회 문제들은 단기간에 돌파하기 힘들고, 한두 명이 고립된 채 연구하거나 대응한다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을 매개로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우리 고민의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연대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만나자, 얘기하자, 포기하지 말자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의 형태가 강의든, 워크숍이든 뭐든지 일단 만나서 해결하자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조직에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필요성은 알지만, 여전히 교육적 만남에 쓸 어떤 여유가 없다는 의미이겠지요.

마무리하며

이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익활동 교육 개발 관련 인터뷰 글을 정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나름대로 진행한 인터뷰나 연구 조사, 개인적인 활동으로 활동가 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사그라들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반가운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은 세상을 위해 애쓰는 이타적인 마음들이 여전히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우리 시민사회가 지탱해 온 풀뿌리 운동은 여전히 힘을 내어 주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우리를 분절화 시키고 있고, 다양한 방법론적인 해결책으로 리빙랩, 디자인씽킹, 공론장 등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이 많아지고 있어도, 늘어나는 양만큼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활동가 교육은 역량 증진을 위한 커리큘럼도 필요하지만, 관계를 기반으로 가치나 사회의 맥락 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며 정리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등 모든 것이 축적되어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역량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은 일반 기업이 요구하는 방식인데, 활동가들에게도 그런 것을 강요하는 시대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사회적 방식은

함께 연대하며 지식적 역량, 기술적 방법, 태도적 가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 협력을 즐거워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 흐름을 진단하면서 의미 있는 판단을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일방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말이 우리 안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기획의 시대가 된 듯합니다. 목표와 목적에 맞는 기획력이 조직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하며 소셜임팩트, 이노베이션 등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말들로 기존의 사회 운동과 차별화된 운동을 시도하지만, 우리는 과연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맥락과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은 소수가 만들어 낸 작은 실천 그룹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발현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독려와 응원과 연대의 힘이 필요하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당연하지만, 진보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모두의 마음처럼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것이겠지요.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3

인공지능(챗GPT)과 비영리에서의 활용 가치

박 용 구구컬리지 이사장



올해 비영리 영역 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경향으로 단연 인공지능(챗GPT)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급증했고, 특히 챗GPT 관련 교육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선 인공지능(챗GPT)의 등장과 동향, 비영리에서의 활용 가치, 주의점 등에 대해 <구구컬리지>의 박용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올해 IT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일까요? IT 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과 번역한 글들이 상을 탔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후로 꾸준히 성능이 개선됐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인공지능이 또다시 주목받게 됐을까요? 바로 언어를 학습하고 소통하는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 때문입니다.

📶 챗GPT 이전의 인공지능, 알파고

챗GPT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두가 아는 알파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파고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청소하다

방을 뛰쳐나가는 로봇청소기에 사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왔는데 바둑에서 사람을 이기다니 엄청난 충격이었고 사람들은 알파고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알파고에 사용된 방법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 학습 종류 중 하나입니다. 러닝과 학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하는 것이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점입니다.

기계 학습 이전,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손을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 손이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들을 사람이 파악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색, 손의 형태 특징을 파악해서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특징을 찾아내서 만드는 것의 단점은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손을 피부색으로 구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특종 인종의 손만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손을 크기로 구별한다면 어른 손에 동작하게 만든 프로그램은 아이의 손은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개발자가 특징을 파악해서 만들면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기계 학습입니다. 사람이 직접 패턴을 파악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학습해서 스스로 찾게 하자는 발상입니다. 기계 학습 중의 딥러닝은 사람의 뇌, 신경망의 동작 방식을 시뮬레이션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 기계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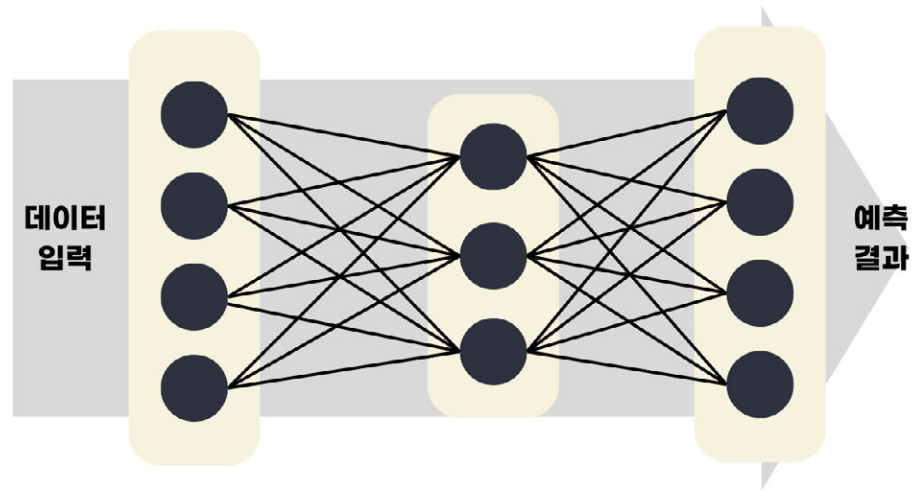
사람은 교재를 읽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강의를 듣고 암기하면서 학습하는데 기계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게임을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맞추는 업앤다운 게임입니다.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나이를 말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어린면 업이라고 말하고 실제 나이보다 많게 말하면 다운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을 몇 번 진행하다 보면 실제 나이를 맞추게 됩니다. 실제 나이를 알고 나서는 똑같은 사람 이미지를 보면 나이를 바로 맞출 수 있게 되니 이제 우리는 사진을 보고 나이를 맞추는 능력을 학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게임에 기계 학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 이미지를 보고 나이를 '43살이야!' 라고 예측합니다. 두 번째, 예측한 나이를 듣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운입니다!' 세 번째, 피드백을 듣고 다시 이전 예측한 나이를 수정해서 예측합니다. '40살이야!' 이렇게 예측, 피드백, 연산해서 재예측을 반복하는 것을 인공지능에서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딥러닝은 예측하고 피드백을 받고 연산하고 재예측할 때 사람의 신경망의 구조를 따라 합니다.



[그림] 딥러닝 신경망

위의 그림에서처럼 딥러닝 신경망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어 안의 점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연산을 진행하고 결과 비교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다 보니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와 텍스트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눈으로 보고 입력을 한다지만 기계는 어떻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기계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숫자 형태로 입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에 표현되는 빨간색은 기계가 볼 때는 숫자 세 개 [255, 0, 0]로 표현됩니다. 녹색은 [0, 255, 0]과 같이 보게 됩니다. 텍스트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따라서 학습을 위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한다는 것은 기계 입장에서는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하면서 간단한 연산을 통해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딥러닝이 알파고를 통해 성능이 증명되면서 딥러닝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과 기능들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 딥러닝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들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딥러닝이 특히 잘하는 기능은 인지와 인식입니다. 간단한 예로 글을 보고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그림을 보고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인지와 인식에 뛰어난 기능은 사람처럼 차를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능, 영어를 한국어 또는 여러 언어로 번역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하는 OCR 기술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술들에 도입되었습니다.

☎ 챗GPT의 등장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해보는 간단한 튜토리얼 중에 스팸메일을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메일의 본문을 읽고 스팸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기사에 달린 댓글이 악성댓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분야 중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분야를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인지와 인식을 넘어 기계에 단어를 주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기법은 2023년 IT를 이끈 챗GPT의 기초가 됩니다.

☎ 챗GPT와 생성형 AI, 거대언어모델

챗GPT는 단어 그대로 채팅이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채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챗GPT는 어떻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됐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인공지능에게 “애벌레가 ()가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주고 맞추는 연습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은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을 때까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찾습니다. 정답 ‘나비’를 찾으면, ‘애벌레가’라는 단어가 오면 그다음 단어로는 ‘나비가 온다는 걸 저장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 안의 괄호를 맞춰 가면서 일종의 정답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에게 단어를 던지면 정답 사전에서 찾아 뒤에 올 단어를 붙이면서 문장을 생성합니다. 처음에 ‘애벌레가’가 주어지면 사전에서 찾아 ‘애벌레가 나비’를 만들고, ‘애벌레가 나비’ 문구를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습니다.’로 생성해 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챗GPT는 기존의 딥러닝이 잘했던 인지와 인식을 넘어 생성하는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transformer는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이론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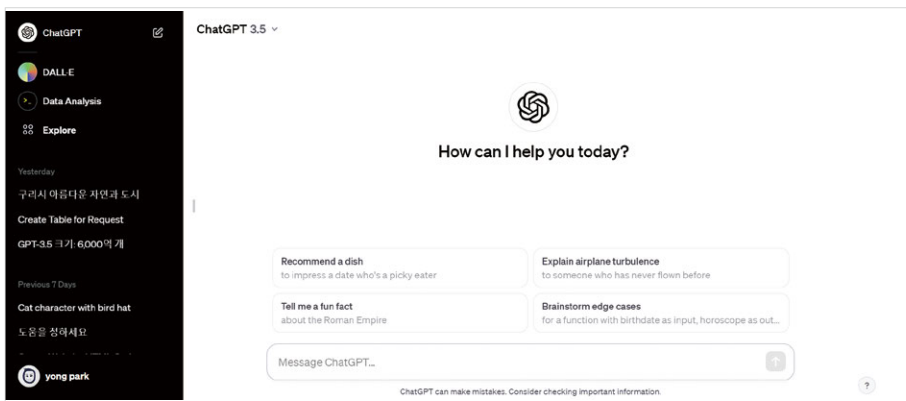
generative는 생성으로 풀이할 수 있고 글자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pre-trained는 사전 학습된 것을 뜻하며 추가 학습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GPT는 언어모델로 사전학습이 되었고 채팅용인 챗GPT로 활용하기 위해 채팅을 위한 학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GPT가 다른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크기입니다. 딥러닝을 설명할 때 뇌의 신경망을 본뜬 구조라고 했는데, GPT 버전3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매개 변수)로 만들어진 큰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크기가 매우 커 거대언어모델 LLM(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GPT에 채팅이 가능하게 학습한 GPT가 2023년도에 공개되면서 다시 인공지능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 챗GPT 기본 사용법

https://chat.openai.com/ 주소에 접속해서 챗GPT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면 기본 사용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 패널에는 채팅방 목록이 있고, 오른쪽의 채팅방에서 챗GPT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챗GPT화면

채팅방 화면에서 GPT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는 무료 버전이고 4.0은 유료 버전입니다. 4.0은 3.5보다 질 좋은 응답을 하고 플러그인, 데이터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예시는 무료 버전인 3.5입니다.

챗GPT에서 질문하는 메시지를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챗GPT의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유념해야 하는 점은 채팅이라는 점입니다. 즉, 응답을 얻을 때 한 번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보다는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응답이 좋은 응답일 확률이 높

습니다. 한 번 궁금한 질문을 해보면서 가볍게 GPT와 채팅해보세요. 챗GPT는 오픈AI(미국 기업)가 만들었고 영어에 대해 학습을 많이 해서 영어로 질문하면 더 긴 글의 응답을 줍니다.



[사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인공지능의 이해와 챗GPT 활용 교육

챗GPT에게 [공익활동가에게 교육은 무엇일까] 질문해 봤습니다. 아래는 그 응답 내용입니다.

“공익활동가 교육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1. **전문 분야 지식:** 공익활동가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 공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및 분석 능력 강화:** 교육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공익활동은 종종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므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3. **커뮤니케이션 기술 강화:** 공익활동가는 자신의 목표와 메시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4.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능력:** 교육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조직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법률 및 윤리 교육:** 공익활동가는 종종 법률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고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관련 법률 및 윤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행동 방침을 제시합니다.
6. **자원 Mobilization:** 교육은 자원 Mobilization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자금 조달, 기부 활동, 자원자 Mobilization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사회적 변화 및 영향 측정:** 공익활동가 교육은 수행된 프로젝트나 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8.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공익활동은 종종 강도 높은 작업을 수반하므로, 교육은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 및 단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럴듯하죠?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구체화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챗GPT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는 글을 작성하고 요약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글 작성을 요청할 때는 원하는 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프롬프트에 ‘주제’, ‘스타일’, ‘글의 길이’ 등을 넣어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글에 맞게 응답을 해줍니다. “공익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뉴스 형식으로 1,000자 이내로 작성해 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GPT 말고 다른 거대언어모델

오픈AI에서 개발한 GPT가 주목을 끌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공개했습니다. 원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영역에서 선두였던 구글은 바드(<https://bard.google.com/chat?hl=ko>)를 공개했습니다.

메타(페이스북)에서는 라마를 공개했습니다. 라마는 오픈소스로 언어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이버는 클로버x(<https://clova-x.naver.com/welcome>)를,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기술인 Bing과 GPT를 연동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 동향

IT회사들은 거대언어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언어모델을 연동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GPT가 초반에 글만 생성했다면 이제는 이미지와 영상도 생성해 주는 멀티모달 기능들이 개발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PPT를 빠르게 만들어 주고 영상을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멀티모달 기능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문서 작업,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듀엣 AI를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PPT, 엑셀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코파일럿을 출시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드는 어도비는 배경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고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들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본인 기업만의 언어모델을 만들려는 것도 많이 시도 되고 있습니다. GPT, 바드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모델이어서 좁은 영역의 정보,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대한 질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학습시켜 챗GPT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대언어모델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시도해볼 수 없었는데 메타에서 LLAMA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개된 거대언어모델의 일정 부분만 학습시켜 좁은 영역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구컬리지도 이쪽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올해 하나의 톨로 자리매김한 이유

챗GPT가 공개되면서 특히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의 글,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콘텐츠 제작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시로 GPT 기능 중에 코드를 작성해 주는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제가 코딩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코드를 생산해 줍니다. 또한 챗GPT에게 데이터분석을 시킬 수도 있고, 이미지 안의 얼굴을 찾아서 블러 처리를 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챗GPT는 기존 업무에 드는 시간과 자원을 줄여주는 보조 도구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에서의 활용 가치

비영리단체 활동가들 대부분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기획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고 뉴스 기사를 쓰고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지요. 이럴 때 챗GPT를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콘텐츠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에 시간을 더 쏟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한다면 수작업하면서 들었던 시간을 더 중요한 업무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료증을 일일이 발행하던 걸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자동으로 발급하고 교육 기획에 시간을 더 들일 수 있습니다.

정책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단체라면, 챗GPT에게 요청해서 회의록에서 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일일이 살펴보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필요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일, 업무 자동화 또는 모니터링 자동화 같은 일들을 챗GPT로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자원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단체라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교육 참가자들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서의 주의점

지금의 챗GPT는 딥러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향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한다면 인공지능은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편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개발한 얼굴 이미지 인식 기능을 비교한 실험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흑인 여성에 대해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습한 데이터 중 흑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딥러닝은 학습에 기반을 둔다는 원리 때문에 편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경우 앞에 있는 문장과 단어를 보고 뒤의 단어를 이어 붙이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각이라고 명칭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인공지능이 만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바로 외부로 공개하기보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단계를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맺는말**

저는 개발자로 작업을 하면서 챗GPT가 공개되기 이전부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코드 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생각해 보면 저의 작업 방식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단체와 같이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지만, 더 나은 작업 방식을 고민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판에 소개되었던 인공지능 관련 교육

교육일	교육기관	교육명
2023.03.22.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챗GPT 인공지능시대 복지실천의 힘 워크숍
2023.06.13.	참여연대 아카데미스티나무	인공지능, 생명, 인간, 문학: 인간다움을 다시 생각한다
2023.06.22.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를 위한 인공지능의 이해와 chatGPT 활용법
2023.06.24.	한국 알사용자회	챗GPT 디지털 글쓰기와 출판 워크샵
2023.07.06.	일생활균형연구소	[기획스터디] 지능정보사회에서 표류하는 공공영역 실무자를 위한 인공지능 안내서
2023.08.12.	수유너머104	이진경×장병탁: 선을 넘는 인공지능 TALK
2023.09.09. ~12.09.	참여연대 아카데미스티나무	[독서클럽 와인] 인공지능
2023.09.09.	세모람	<챗GPT 개발자 핸드북> 저자와의 만남
2023.10.25.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결	10월 월간불턱 <이타주의자: 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까지>
상시	사단법인 비영리IT지원센터	인공지능(AI) 이해와 활용 파트1: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파트2: 생산형 AI 활용방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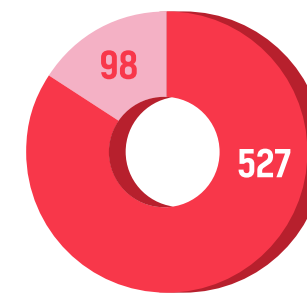
데이터로 본 활동가 학습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Ver.



2023 판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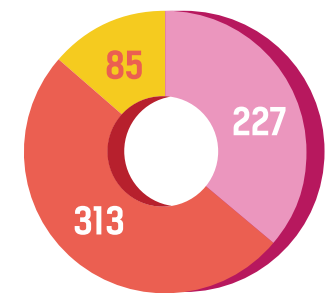
2023년의 판은 교육정보와 영상, 활동가 서재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 정보와 판TV의 교육 콘텐츠 수가 증가하였고, 교육 기관(137개 등록)도 증가했습니다. 판에 올라온 콘텐츠 분석을 통해 올해 활동가 교육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교육유형(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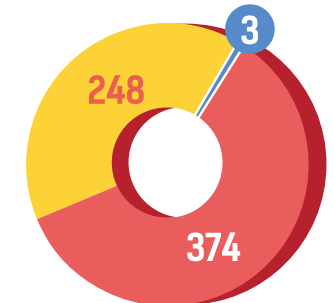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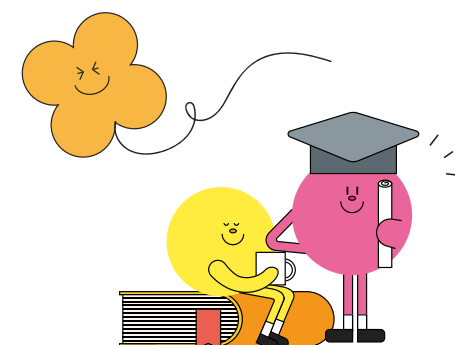
● 교육정보 ● 판TV

교육형태(개)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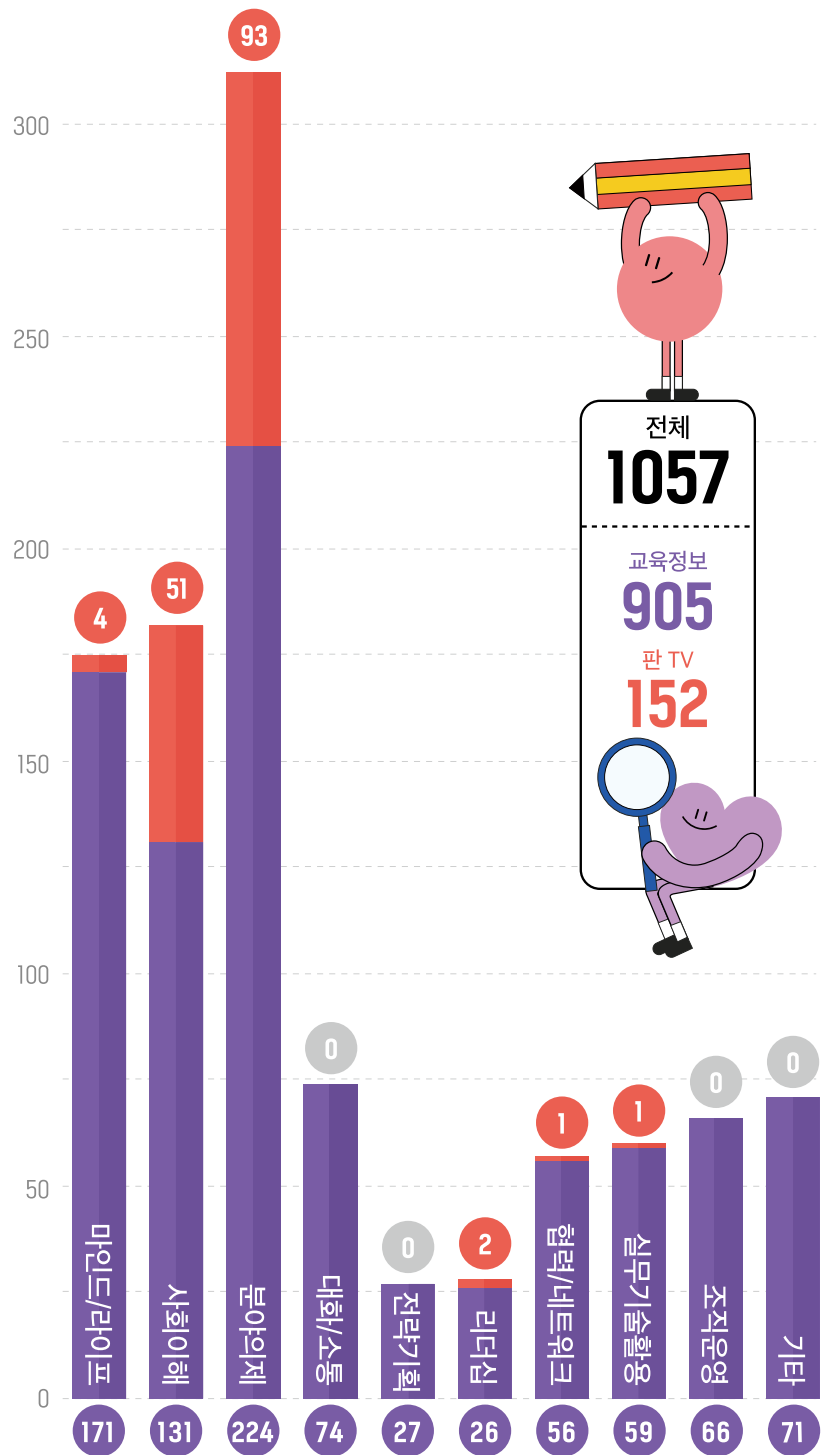
참가비(개)



● 무료 ● 유료 ●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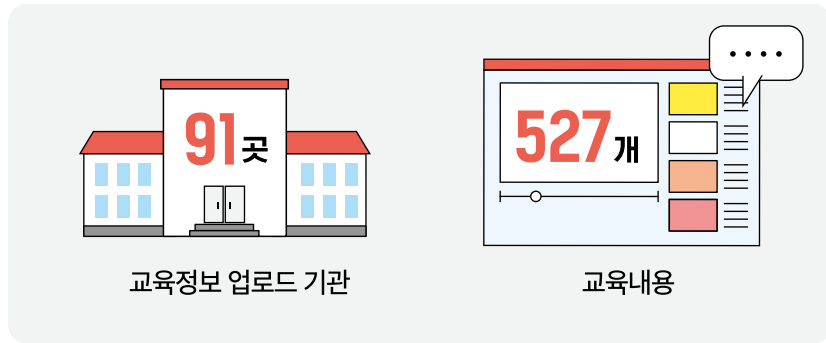
🌐 **활동역량별 (개)**

● 교육정보 ● 판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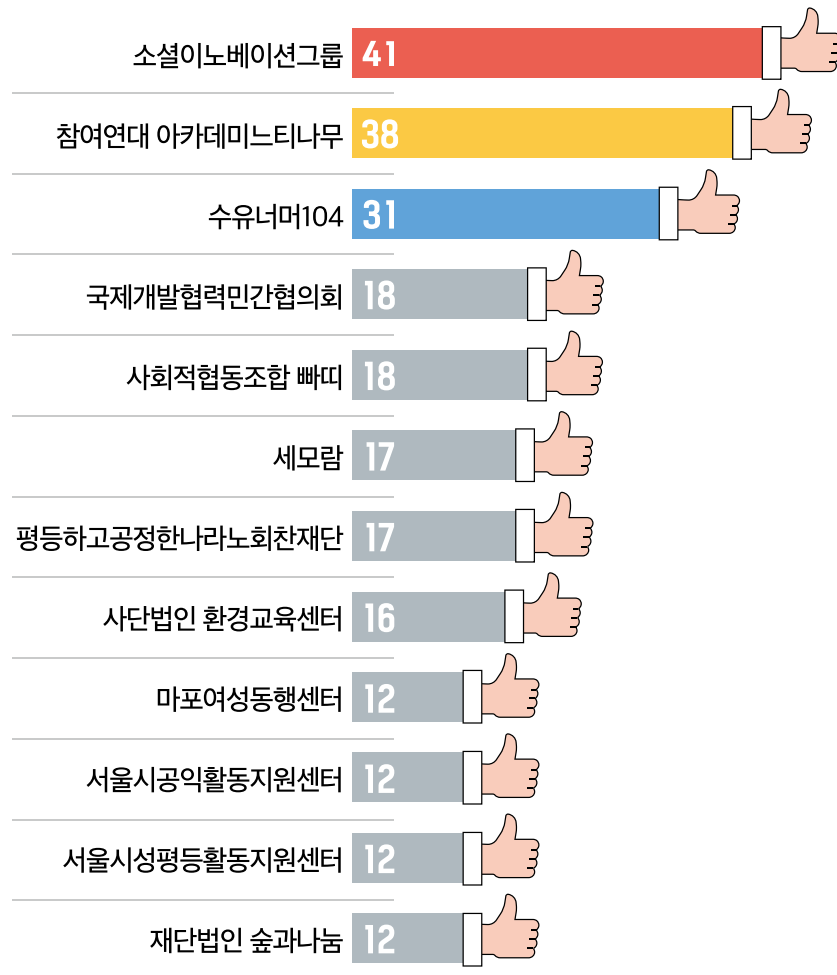


🎯 **분야의제 교육내용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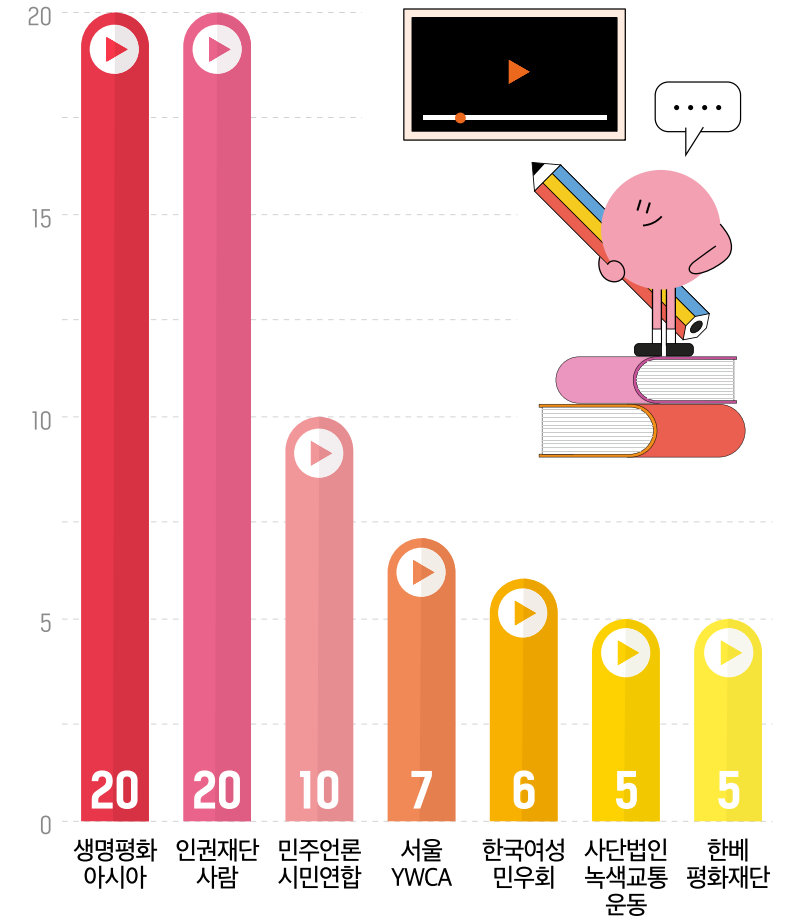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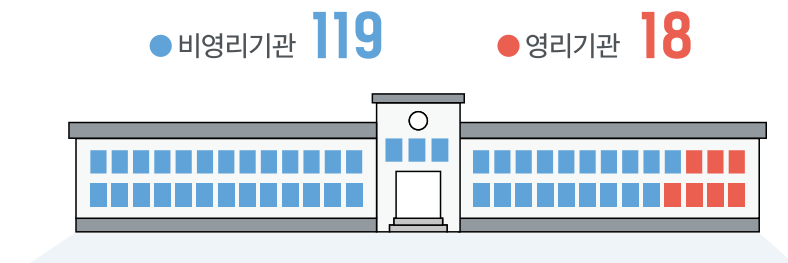
🏆 교육 콘텐츠 등록수 TOP 10 (개)



📺 영상 교육 콘텐츠 등록수 (개)



🏠 2023 교육기관 분포 (개)



5

2023 판 이벤트 'P.A.N.&I'
판은 ○○○이다



공익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판은 어떤 의미와 존재인지, 판의 첫인상은 어떠한지 물어봤습니다.

'판은 ○○○이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들어봤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여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응원으로 활동가의 N개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판은 판공비이다..... 다정교무

공무를 처리 위해 제공되는 판공비처럼 활동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은 매일 찾아보게 되는 편안한 배움터이다..... Tracy

비영리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소통의 장,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서, 매일 출근하고 나면 방문하고 찾아보게 되서입니다.

판은 도전이다..... 무지개

계속 끊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공 해주셔서 도전하게끔 해주니까요!

판은 판도라 이다 집이최고야

한 번 열면 열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 없어서!

판은 정보통 이다 미노루조

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익하고 알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판은 운동화 끈 이다 김효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소하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것, 그리고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운동화 끈이 단단하게 묶여있는지 확인하고, 고쳐 매고요! ^^

판은 정수기 이다 우베

활동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원할 때) 섭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판은 숲속의 옹달샘 이다 정수진

활동하다가 배움에 목이 마를 때, 자료나 정보가 필요할 때 살짝 가서 샘물 한잔하고 오지요.

판은 변화지원 이다 에네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가들을 위한 세상 훌륭한 플랫폼!

판은 붕어빵 이다 그린그린

겨울철 붕어빵은 우리 가슴을 데우는 메타포인 것처럼, 나에게 판은 '이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생각과 가치와 실천을 위해 모이고 뛰는 활동가들과 모임이 있구나...'

새로운 판을 열어볼때 마다 내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진다. 함께하고 있다는 이 뜨거움과 감사함에..

판은 소식 빠른 친구 이다 콩이

활동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물어다 주는 친절한 친구 같아요.

판은 활동가들의 놀이터 이다 한량

집 근처에서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놀이터처럼 속하고 들렀다가 놀고, 또 재미나게 놀 수 있어서 '판은 놀이터'입니다.

판은 대동여지도 이다..... 같이가치

지도 혹은 나침반이 되어주는 판 -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 준다. - 지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대동여지도는 누구나 만들 수 없다. 판이 바로 그렇다.

판은 만남과 소통의 장 이다..... 김예빈

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받고 다양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어 좋았기 때문이다.

판은 주경아독이다..... 무기명

낮에는 활동(또는 업무)하고 다른 시간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 정보를 얻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판 화이팅!

판은 나눔창 이다..... 박점자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미하여 세상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판은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가는 모닥불 이다..... 풀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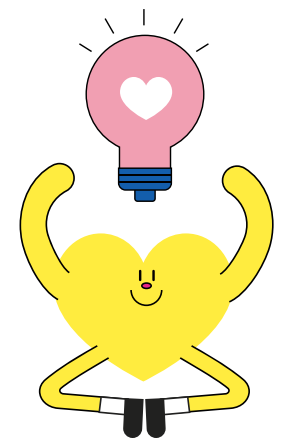
각자도생, 전환의 세대를 살아가는 요즘, 한 줌 희망의 빛을 지켜가는 서로의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입니다.

판은 활동력을 기를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 이다..... 강미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선배 활동가에게 활동력을 사사 받는 이 역설적으로 권위적인 도제식의 활동가 양성 현실에 나타난 건강한 손길, 동아줄과 닮았다.

판은 선물상자 이다..... 김현정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번창하세요!



「행동하는 지식, 변화의 시작 : 2023 공익활동 학습 리포트」

발행일 2023년 12월 14일 (seoulpa 2023-A-003)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대표전화 02-734-1109
이메일 contact@seoulpa.kr / npo-pan@seoulpa.kr
홈페이지 www.seoulpa.kr

- ▶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글쓴이 정보는 집필 시기 당시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